2024 제주\_한캠 USA.mp4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봄집의 선교동역자 여러분께,

Greetings to all beloved 'Dabom house' ministry partners,

한국의 8월은 푸른 계절 가을을 맞이 위해 늦더위가 몸부림 치는 달입니다. 게다가 저희에게는 광복의 기쁨이 민족의 긍지를 더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올해 8월이, 미리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는 달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부부가 오는 23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해 잠시 제주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As the last month of the sizzling summer, August in Korea is always brutal, but it is also a month of pride celebrating our nation’s independence. For us, this month is also particularly noteworthy as we will briefly leave Jeju and travel to a country in Southeast Asia on the 23rd of August to embark on a new ministry.

한편,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지난 '2024 Jeju Summer VBS Camp'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상 첨부) 지난 편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될 이 제주 VBS 캠프는 내년부터 서너 명의 젊은 사역자들이 대부분의 순서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도 뒤에서 돕겠습니다만, 앞에서 인도할 선생님들은 젊은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Thanks to all of your prayers and support, the 2024 Jeju Summer VBS Camp program wrapped up smoothly by God's grace (please see the attached video.) As mentioned in the last prayer letter, the Jeju VBS camps, starting next year, will be headed up by a few other younger ministry workers and teachers, while we of course will keep supporting from behind the scenes.

VBS 캠프를 마치면서부터 곧 바로 저희 부부는 본격적인 예제원 사역 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크게 세 가지 면에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곳에서 진행해오던 사역을 정리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 다봄집에 누가 와서 머물든 숙박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일이며, 셋째는 이곳에 머물면서 기본적인 집 관리를 해줄 동역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As soon as the VBS camp ended, we (my wife and I) have been in preparation mode for the coming 예제원 ministry. Three big prayer points we have been lifting up are:

1. That we can wrap up and pass on the ministry here well

2. That the Dabom House would become a safe and comfortable shelter for any visitors who stop by

3. That we would find a ministry partner willing to stay at this place and keep the house well maintained.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동안 저희가 함께 예배드렸던 신제주광염교회(강성운 목사)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전했으며, 우리가 없는 동안 이곳에 머물며 동역할 분들도 순조롭게 얘기가 되고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봄집 내 짐 정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Up until now, all of these prayer points have been so carefully and thoroughly answered, and it’s all by the grace of God. Last Sunday, I preached the sermon at the church we’ve been attending (신제주광염교회, 강성진 목사님), and we’ve been thankfully in discussion with other partners who are willing to stay at our place while we’re gone. And now we are just seeking the Lord’s wisdom with packing and organizing the rest of our belongings.

이제 남은 일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면서부터 지지와 중보를 해주셨던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더욱 그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역에는 많은 도전과 훼방 그리고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번의 영적 도전과 훼방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덕분에 저희가 잘 이겨내고 있으며,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All the work that seems to be left is for us to pray! You all have been so supportive in prayer since the beginning of our mission trip here, and we will need to rely on that power of prayer all the more. To be honest, this type of ministry incurs much spiritual warfare in the form of challenges, distractions, and hindrances. And I firmly believe that it is through your prayer and by God’s grace that we have been able to continue overcoming these challenges thus far.

먼저, 저희 부부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제원에서의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예제원 사역을 통하여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부디 변함없이 끝까지 쓰임받고,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 될 지 모르는 이 사역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As for prayer requests: firstly, please pray for my wife and my physical & spiritual health. Next, we would love prayer for the Lord’s anointing over the 예제원 ministry. Lastly, please pray that our lives as we minister there would be a delight unto the Lord, and that we would remain unchangingly faithful until the end of this ministry, which may well be our last opportunity to serve.

그동안 서귀포 다봄집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 부부를 깨우고 세우셔서 새로운 사역에로의 도전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구드리지만, 저희 부부가 부디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Throughout this time, we have been grateful to partner with you all as supporters of our Seogwipo Dabom House. We thank God for His grace of awakening us, establishing us, and bringing us to take on this challenge of a new ministry. As a final request to you all, once again, I ask for your prayers & support as my wife and I strive to be faithful until the end, always ready to be used by the Lord. Blessings and love in Christ,

서귀포 다봄집에서,

임철현, 임윤실 올림

From Seogwipo Dabom House

Charles and Yoon Lim